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6. 4. 19 ~ 2016. 4. 24

출장지: 프랑스

출장자: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2016. 4. 19 ~ 4. 24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사흠	

4. 출장목적

OECD에서 개최하는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산하 작업반 회의의 우리정부 대표단
업무지원 및 자문 수행

OECD 및 회원국의 지역정책 담당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제 정책연구 협력 도모

II.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4/19(화)	인천	파리	■ 출발(13:30) 및 도착(18:30) ■ 회의 참석 준비
4/20(수)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 회의 참석 - 제30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 제19차 도시정책작업반 회의 (09:30-18:00)
4/21(목)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 회의 참석 - 제3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09:30-18:00)
4/22(금)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 회의 참석 - 제3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 국토부-OECD 공동연구과제 발표회 (09:30-12:30) (13:00-17:00)
4/23(토)	파리	인천	■ 회의내용 정리 및 전문작성 ■ 출발(21:00)
4/24(일)	인천		도착 (15:00)

III. 수행사항

1. 회의 개요

- 일시: 2016. 4. 20(수) - 22(금), 09:30-18:00
- 장소: OECD 본부 회의장
- 목적: 지표개발, 사례연구 등을 통해 OECD 회원국의 지역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식기반을 제공하고 아울러 회원국의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한 최신 정책동향을 공유

2. 주요 내용

가. 제 19 차 도시정책 작업반회의(2016.4.20)

(1) 오프닝세션

- 제 18차 회의 주요 성과 보고 및 제 19차 회의 주요 아젠다 승인
- 2016년 11. 9.-10. 파리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포럼(OECD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에 대해 소개하고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국가별 최근의 도시개발 현황 소개
 - (한국) 최근 도심의 성장정책 및 고령화 등 도시의 구조적 변화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도시개발정책의 방향을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소개
 - * 144개의 도시(시단위)중 55개(38%)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주택노후화 등 심각한 쇠퇴가 진행중
- 또한, 도시재생의 실행방법으로서 도시재생의 3가지 유형(경제기반형(5곳), 중심시가지형(9곳), 근린재생형(19곳)) 있음을 소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13년 제정)과, ‘15년 출범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 영국: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집행권한과 의사결정권 강화를 추진, 지방정부간의 협력장려
 - 일본: 콤팩트시티 조성과 도시지역에서의 농업활성화를 위한 입법추진

- 스웨덴, 멕시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개발기금을 마련하고 지역정부가 주가 되어 기금을 활용한 도시개발 어젠다를 이행하는 상향식발전모델을 추구함
- 2017-18 도시정책작업반 과제 관련 예산작업계획(PWB) 소개 및 회원국 의견 수렴
- 예산작업계획을 통해 작성된 예산은 5월에 최종적으로 제출되어 6월에 확정될 예정

(2) 해비타트3와 신규 아젠다

- OECD 사무국에서 해비타트3와 관련한 최근의 활동에 대해 보고
- UN-Habitat는 Policy Unit 및 OECD와 함께 해비타트3를 위해 개최한 조인트 준비미팅에 대한 결과 보고
 - * UN Habitat Policy Unit: OECD의 전문가패널로 UN Habitat3의 UNP(National Urban Policy)프로세스를 이끌 예정
- 멕시코: 해비타트3 관련 실무회의(Expert Group)가 2015년 11월 4일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어 도시계획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도시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 논의 함
- 한국: 한국은 해비타트3와 관련한 활동중 하나로 2015년 12월 인천 송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UN-HABITAT NUP(National Urban Policy) 국제 공동 컨퍼런스의 성과에 대해 회원국에게 소개하고,
- 해비타트3 및 이를 위한 제3차 준비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 및 관련 연구원으로 구성된 T/F를 이미 구성, 운영중임을 설명
- 또한, 국토부 장관(또는 차관)님이 참석할 계획이므로 OECD사무총장이 동석할 경우 10개 이내 국가가 참석하는 고위급 오찬을 주최할 의사가 있음을 제안

(3) 도시 회복력과 녹색 성장

- OECD사무국은 ‘다이나믹 아시아 프로젝트’의 도시녹색성장에 대한 진행사항과 Haiphong(베트남)과 Bandung(인도네시아)에 대한 케이스스터디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회원국의 승인을 받음
- 2개 프로젝트 ‘Resilient Cities’와 ‘Energy and Resilient Cities’에 대한 주요 결과를 보고하고 회원국의 승인을 받음
- Resilient cities: 각 도시들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제도적 추진동력을 통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도시의 회복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
- 자연재해, 대내외적 충격요인에 대해 회복능력을 의미하며, 종전의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외에, 경제다각화, 혁신능력, 회복력을 위한 체제마련 등 다각적 의미를 내포함

- Energy and Resilient Cities: 회복력 증진을 위한 도시 에너지 정책의 역할 연구, Barcelona(스페인), Bristol(영국), Kyoto(일본), Munich(독일), Perpignan(프랑스), Toronto(캐나다)에 의해 제공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 ‘동남아시아 도시의 도시 회복력 및 재앙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평가’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고
 - * Bandung(인도네시아), Bangkok(태국), Cebu(필리핀), Haiphong(베트남), Iskandar(말레이시아)

나. 지역지표작업반회의(2016.4.20)

(1) 오프닝세션

- 제 29차 회의 주요 성과 보고 및 제 30차 회의 주요 아젠다 승인
 - 본 회의에서는 격년을 주기로 발간되는 Regions at a Glance 2016 주요 결과 및 지역지표반에서 중점 추진 중 인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in cities and regions(도시 및 지역에서의 포용적 성장) 중간결과 보고 진행
- 2017-18 지역지표작업반 과제 관련 예산작업계획(PWB) 소개 및 회원국 의견 수렴
 - 2017-18 지역지표작업반 예산작업계획 관련 주요 주제(pillars)는 1. 지역생산성 제고(Regional Productivity), 2. 지역 분권화 (Decentralization), 3. 도시 및 지역의 포용력 (Inclusive cities and regions)
 - 주요 주제와 관련 세부 프로젝트들은 각 국의 연구주제 관련 우선순위조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 및 실행될 예정
 - 예산작업계획을 통해 작성된 예산은 5월에 최종적으로 제출되어 6월에 확정될 예정
- OECD 사무국 및 주요국 의견 교환

- (사무국) 도시 및 지역에서의 포용적 성장 연구를 가을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 (사무국) 이민자 통합(Integration of migrants)과 관련된 정책지표 개발 및 사례 연구 진행 예정
- (프랑스) 다양한 지표개발과 사례 연구를 통해 도시 및 지역에서의 공간적 불평등(Spatial Inequality)과 공간적 분리(Spatial Segregation)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영국) 런던이라는 대도시와 기타지역간의 성장 격차라는 관점에서 분권화(Decentralization) 관련 연구가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도시나 지역간뿐만 아니라 도시내부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도 필요

(2) Regions at a Glance

- Regions at a Glance 2016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보고
 - OECD 회원국 내 지역간 실업률 차이가 급증(최대 30%p 차이를 보이며 이는 2014년 대비 10%p 증가한 수치임)
 - 마찬가지로, 안전성(Safety),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고용(Employment), 기대수명(Life-expectancy)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지역간 경제적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발전된 지역과 비발전지역 나누어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 측면에서는 발전된 지역과 비발전지역의 고용자들의 교육수준 차이가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매우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 분야 인력 규모의 경우 교육수준과는 반대로 그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 즉 단순한 교육수준 보다는 실질적인 연구개발 분야의 인력이 지역간 발전 격차의 실질적 원인이라고 판단됨
 - 기타 주요 결과들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률(특히, 비도시지역에서) 증가
 - 정책적 측면에서 경제분야(Economic Affairs)와 교육(Education)에서 지방정부투자(Subnational Government Investment)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 한국의 경우 2007년과 2014년을 비교한 결과 지방정부의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지역 중 소득수준 기준 하위30% 지역들은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0.5%/year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의 생산성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대도시 지역(Metropolitan area)의 경우 여전히 국가 전체 GDP 성장의 60% 이상을 감당하는 것으로 관찰됨(다른 지역 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공간적 특징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성장(Employment growth)의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의 고용성장을 관찰하면 도시 지역보다 비도시지역에서 더 많은 고용성장이 나타난 것으로 관찰됨

(3) OECD-EU 방법 적용을 통한 콜롬비아 도시지역 재구성

- 2012년 OECD-EU에서 고안된 지역구분 방법을 콜롬비아 도시지역 구성에 적용
 - OECD-EU는 단순히 인구규모, 혹은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한 지역 분류와 차별화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시지역을 구분
 -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시지역(FAU: Functional Urban Areas)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 적용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능적 도시지역(FAU)은 1. 기존의 도심, 2. 부심등을 포함하는 다핵, 3. 주변의 통근권역을 포함하여 구성됨
 - * 콜롬비아의 경우 53개의 FAU가 분류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중앙 및 서쪽에 집중적으로 위치함
 - 기존에 콜롬비아는 하나의 Core 를 중심으로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묶어서 총 6개의 대도시권역을 분류하였으나, 새로운 방법 적용을 통해 다수의 FAU 지역으로 국토 지역을 재분류함
 - 향후에는 FAU를 기본적인 공간적 단위로 하는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회원국간의 비교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개방형 공공데이터(Open Government Data)와 지역지표

- 개방형 공공데이터 관련 주요 개념 및 지역지표 측면에서의 활용방안 논의

- 개방형 공공데이터 정의(OECD): “공공에 의해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데이터 및 정보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및 배포 가능한 자료”를 의미
- 개방형 공공데이터의 지역지표 부분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NSO의 역할은:
 1. 자료를 생산 및 가공하는 역할
 2. 지역으로부터의 자료를 수용하는 역할: 다양한 프레임에서 생산되는 지역의 자료들을 일관된 방법으로 정리
 3. 혁신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함: 지역개발 및 혁신 창출을 위한 자료으로써 개방형 공공데이터 활용
- (회원국 토론 요약) 개방형 공공데이터 구축의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지만,
 1. 데이터 자체의 문제보다 데이터에 접근하는 부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어느 수준까지, 누구에서 개방할 것인가, 저작권 관련 문제)이 여전히 존재하며,
 2. 매우 이질적인 지역 환경에서 조사된 자료들을 어떻게 규격화하고 일관적 프레임워크로 가공 및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

(5) 지역수렴(Regional Convergence)에 관한 이해: 데이터와 분석 중심으로

- o OECD Regional Outlook 2016 보고서의 주요 주제 중의 하나인 지역수렴 현상 분석에 대한 설명 및 분석 결과 논의
- 기존의 경제학 이론은 지역간의 자원 및 기술이 개방적으로 공유되는 상황에서 지역들의 경제적 성장이 시차를 두고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지역수렴 가설을 제기
- 그러나 최근의 OECD 의 분석 결과, 국가간의 경제적 성장 격차는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한 반면 국가 내 지역 간의 경제 성장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특히,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다수의 비도시(Rural) 지역의 발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수렴과 반대되는 지역발산(Divergence)의 현상으로 관찰되기도 함

- 2008년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관찰된 것처럼 지역의 수렴과 발산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생산성 성장(Productivity Growth)이 지목됨
- 즉, 지역간의 생산성 성장률의 격차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
- 프론티어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상대적인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성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를 위시한 도시지역들이 프론티어 지역의 대부분(71%)을 구성하고 비도시 지역의 경우 발전이 더딘(Lagging) 지역에 속하는 경우가 더 많은(64%) 것으로 관찰됨
- 이러한 생산성 성장의 차이를 극복하는(Catching-up)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각 교역가능 산업부문의 구성 비율 (Share of Tradable Sector)이 지목됨
- 교역가능 산업부문의 경우 다른 국가 및 지역의 동종업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이 애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경쟁력 상승으로 직결됨
- 그러나 인구밀도, 교육수준, 연구개발(R&D) 등과 같은 고전적인 경제성장 요인은 Catching-up 과정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Catching-up 촉진을 위한 다음의 정책적 방향을 제언
 1. 단순한 지역발전정책(Regional Development Policy) 수준을 넘는 국가전체의 경제 정책(Economic-Wide Policy) 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이 요구됨
 2. 정교하게 설계된 공공투자를 실행하여 Catching-up 을 유도
 3. 다층화된 거버넌스 체계(Multi-Level Governance)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 토론 요약)

- 지역간 성장격차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부의 개인간 혹은 가구간 경제적 불균등 역시 연구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판단됨
- 각 국가별로 프론티어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혹은 도시들의 특성이 매우 이질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실증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간, 혹은 지역내 불평등에 관한 연구의 경우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의 공간적 Scale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심도있는 사례분석(Zoom-in)을 통해 평균적인 수치 비교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교역가능 산업부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부문 중의 하나인 농업(Agriculture)의 경우 일부 유럽 지역의 경우 교역이 아닌 내수 혹은 자급자족의 용도로 그 산출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음. 즉, 교역가능 산업부문의 분류를 일관적으로 적용할 경우 일부 국가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6) 웹스크래핑(Web-Scrapping)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주택가격 추정

- o 기존의 실거래가 혹은 가격지수 위주로 제공되던 주택가격을 주택 거래 웹사이트 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기존의 방법으로 추정된 주택가격과 비교
- 동일한 임금 수준에서 각 지역의 물가(Living cost)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동일한 물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입지하는 지역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주택 가격의 경우 지역의 물가를 좌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지역별 주택가격은,
 1.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추정되거나,
 2. 국가 통계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가격지수의 형태로 제공
- o 그러나 실거래가를 기준하는 경우 거래량이 제한적일 경우 추정된 가격의 통계적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할 수 있으며, 가격지수의 경우 실질적인 가격인 아닌 지수의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
-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거래 관련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주택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영향을 반영하는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헤도닉(Hedonic) 모형을 사용하여 주택가격 함수를 추정하고 각 지역별 주택 가격 차이를 측정함
- o 함수 추정결과, 각 지역별로 발표되는 주택가격지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 (0.96)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o 즉, 지역별 주택가격의 차이를 지수가 아닌 실제 가격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

(7) 도시 및 지역에서의 포용적 성장

- 도시 및 지역에서의 경제적 포용성장에 관한 OECD 연구들의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공간에서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논의
- 포용성장에 대한 3 가지 연구 주제 발표

1.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in Cities and Regions (OECD)

- 도시 및 지역에서의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은 소득 수준에 따른 사람 혹은 가구의 공간적인 분리(Spatial Segregation)를 야기함
- 즉, 비슷한 소득 수준을 지닌 사람들끼리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거주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부와 빈곤의 세대간 대물림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도시 및 지역의 낙후지역의 경우, 양질의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받게 되고,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함
- 네덜란드 지역의 연구 결과, 도시 내 가난한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 보다 평균적으로 약 5.5 %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됨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이 교육 및 취업기회 등에서 공간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공급하는 형태의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파편화된 지역의 행정체계(Fragmented Governance)를 통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로 Governance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OECD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층화된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에 대한 연구들이 이러한 지원체계 개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2. Agglomeration, Economic-Growth, and Social-Spatial Inequality (James Hutton Institute)

- 인적자본과 지식의 공간적 집적(Agglomeration)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옴

- 특히, 규모가 큰 대도시일 수록, 양질의 인적자본이 집적하고 이들 간의 지식 확산(Knowledge spillover)이 파생시키는 혁신이 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동함
- 그러나 최근 조명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이러한 집적경제를 기반한 경제성장은 도시 및 지역 내의 공간적,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지목되기도 함
- 즉, 집적에서 소외되는 도시 및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정체(Lagging)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효율과 형평의 상충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으로 직주가 분리되는(Spatial Mismatch) 현상을 극복하도록 해야 함

3. Achieving Inclusive Growth in Cities: Toward a Policy Agenda (Prof. Mike Campbell)

-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경제적 성장을 재구조화(Restructuring)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됨
- 즉 포용과 성장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적 아젠다로 인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경제적 성장은 지역의 포용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 포용성의 증가가 관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미 위의 연구에서 언급된 정치적 제언과 같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주민과 직업의 거리를 정책적으로 좁힐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무엇보다, 포용적 성장이 지역 및 도시에서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로써 인식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제 35 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2016.4.21-22)

(1) 오프닝세션

- 제34차 회의 주요 성과 보고 및 제30차 회의 주요 아젠다 승인
- 4.20(수) 진행된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산하 도시정책작업반(도시회복력, 녹색성장 등) 및 지역지표작업반(포용적 성장, 오픈 공공데이터 등) 회의 결과 보고
- 추가로, 6월에 개최 예정인 Water Governance Initiative meeting 등의 향후 일정 소개

(2)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글로벌 및 OECD 전체 아젠다 관련 성과보고 및 예산계획안 논의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COP21, Habitat III 및 UN의 지속가능한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글로벌 아젠다 및 녹색성장과 같은 OECD 전체 아젠다의 성공적인 이행과 분석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음
- OECD 각료회의 2016(OECD Ministerial Council Meeting 2016)
 - 2016년 OECD 각료회의의 주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강화 방안(Enhancing Productivity for Inclusive Growth)”으로써 지역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포용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 중
- 2017-18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과제 관련 예산작업계획(PWB) 소개 및 의견 수렴
- 2017-18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주요 주제 및 세부 연구과제를 소개하고, 각 주제 및 과제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결과를 논의
 - 현재 각 연구과제 단위로 자발적 기여를 통해 유지되는 예산의 특성상, 유연한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
 -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몇몇 연구 과제를 그룹화하여 각 그룹별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방법을 고안 중 (관심국가별로 그룹을 형성해 그룹 내에 조성된 연구예산을 OECD가 유연하게 집행하는 방식)

(3) Regional Outlook 2016

- 지역간의 생산성 격차 및 극복방안을 주요 주제로 연구된 Regional Outlook 2016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지역지표작업반 회의결과 보고서 참고)
- 비도시지역 개발 정책 관련 특별 보고(Special Focus on Rural Development Policy)
 - 과거에는 농촌 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로 개발되거나 경제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보는 시각으로 전환 중
 - 즉, 도시와 비도시 지역은 본질적으로 구분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연속적인 공간이라는 시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
 - 이러한 개념하에 비도시 지역을 크게 1. 기능적 도시지역 내의 저밀도 지역, 2. 도시와 인접한 지역, 3. 도시와 매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주목할 점은,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80%가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내의 공간에 거주한다는 사실이며,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관찰된 결과를 보면 대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비도시지역을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 더딘 낙후지역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전환하여, 비도시지역이 지닌 기회요인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비도시 지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비도시지역의 자체의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전략이 요구됨

(4) 다층화된 거버넌스(MLG: Multi-Level Governance) 체계 및 국토공간 개선

- 다층화된 거버넌스 체계로의 변환은 3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 1. 제도적 관점: 중앙정부 집중된 권한, 자원, 책임을 제도적으로 재분배하는 과정, 2. 국토공간 관점: 일부 대도시로의 공간적 집중을 효과적으로 분산 및 재배치, 3. 공공관리 관점: 중앙정부 및 지방행정조직의 구조변환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다층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의 행정체계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함
- 경제적 위기 하에서 기존의 중앙집권적, 혹은 파편화된 지방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의 한계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 다층화된 거버넌스 체계로의 변환과 관련된 주요국의 경험 공유 및 의견 수렴
 - **(네덜란드)** Dutch National Advisory Committe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라는 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있음. 특히, 파편화된 지방 행정구역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간의 연계협력을 강조
 - **(핀란드)** 300개의 매우 작은 단위의 지자체로 조직되어 있던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줄여나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에 공급하리라 기대하고 있음
 - **(이탈리아)**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적극적인 분권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지방정부의 불투명한 재정지출 발생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최근에는 다시 중앙으로 집중하는(Recentralization)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실시 중
 - **(주요국 의견종합)**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성을 위해 파편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을 적극적으로 합병하는 형태의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중.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 관리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 중
- 다층화된 지방자치기관의 연계협력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MGLI: Multi-Level Governance Indicator)개발
 - OECD내 다양한 국가에서 실행중인 다층화된 거버넌스 체계로의 변환 과정을 진단하고, 국가간 비교를 위한 계량화된 측정지표를 개발
 - 지역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연계협력 과정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총 13개 부분의 Pilot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최종적인 연계협력 지표값을 도출함
 - 객관적, 계량적인 지표값 도출을 위해 정성적인 연계협력 과정의 특성들은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함

- 현재까지, 도출된 각 국가의 MGLI와 지방정부의 공공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표값이 높은 국가일수록 지방정부의 공공투자 규모가 높게 나타는 현상이 관찰됨
- **(회원국 의견)** 13개의 Pilot 지표를 통합하여 MGLI를 산출할때, 각 지표별 가중치를 감안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은 매우 동적인(Dynamic) 과정인데, 이를 정적인(Static) 지표로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은 정량적인 특성 보다 정성적이고 정치적인 판단 및 상황에 매우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을 배제한 지표가 얼마나 실효적인지 우려됨

(5) 포용과 지역개발(Inclusiveness and Regional Development)

- 한국의 도로인프라, 포용적 개발,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
-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경제개발 및 포용적 성장과 관련한 도로 인프라의 역할을 교통안전의 관점에서 분석
- 접근성의 향상 기업 입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술집약산업의 성과에 매우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접근성의 향상은 여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접근 등을 개선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에 기여함
- 이러한 접근성 향상의 이면에는, 높은 보행자 사망률이라는 부작용이 관찰되는데, 65세 이상의 고령 보행자의 사망이 높은 보행자 사망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 인프라의 공급과 고령통행자의 통행 행태가 이러한 심각한 사고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됨
- **(주요국 의견)** 보행자와 차량의 적극적인 공간공유(Space Sharing)를 통해 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행자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음. 즉, 적극적인 공간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6) 글로벌 가치사슬과 지역개발(Global value chains and regional development response)

- OECD-WTO Trade in Value Added(TiVA) 이니셔티브에서 데이터 및 TiVA 지표 등을 활용한 국제적 가치사슬의 새로운 특성 및 지역사례 등을 소개
- OECD work on global value chains and trade in value added
 -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구를 통해, 한 국가에서의 소비가 다른 국가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어떠한 형태로 기여하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유럽에서 조립되어 미국에서 소비된 내구재의 경우 조립을 담당하는 유럽의 기업, 그리고 내구재의 원료를 제공한 기업 혹은 국가, 지역의 부가가치와 연결되어 있음
 - 특히, 제조업과 관련한 부가가치 사슬을 관찰해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산출이 매우 밀접한 부가가치 사슬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업 산출 자체뿐만 아니라 제조업 산출물 내부에 장착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등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 가능함
 - 공간적인 관점에서, 과거 값싼 노동력 수급을 이유로 해외에 이전했던(offshore) 제조업체들의 생산기지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현상(reshoring) 역시 관찰됨(통계적인 수치로 증명되진 않음)
 - 제조업의 뒤를 이어 R&D의 기능이전(offshore)이 따를 것 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적재산권유출에 대한 우려, 다국적기업의 현 입지 등을 이유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지역사례 소개

1.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 코르도바는 아르헨티나의 내륙도시로써 아르헨티나 GDP산출의 3위, 제조업 산출의 73%를 감당하는 등, 국내 경제 성장의 엔진역할을 하는 지역
-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코르도바는 4개의 전략산업에는 농업, 금속기계, ICTs, 관광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전략산업의 발전 추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① 불안정한 환율 및 자국 화폐의 가치 변동 등의 거시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치 등이 힘든 상황임

② 높은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지닌 양질의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인프라 수준 역시 낮은 현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전략 수립 및 수행이 요구됨

2. 이탈리아 베르가모

- 베르가모는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구조를 적극적으로 변환 중임

- 전통적으로 식물 및 의류 위주로 구성되었던 산업구조를 기계 및 장치 생산, 고무화학 플라스틱 생산 등의 산업구조로 개편 중

- 이러한 고부가가치 및 기술집약적 산업부문으로의 구조 전환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더 많은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노력 중

-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통된 비전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 전략을 도출 중

3. 핀란드 탐페르

- 탐페르는 성공적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한 사례 지역 중의 하나 임

- 제한된 몇몇 코어 산업 부분(기계 공학 및 정보 통신 기술 부문)의 클러스터에만 의존하던 탐페르의 경제구조는 노키아 연구소가 2011년 철수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함

-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들을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유치하고,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산업부분간의 지식 및 기술의 상호 작용을 통해(cross-sectoral) 혁신을 창출하여 위기를 극복함

(6) OECD 국토 리뷰: 페루편(OECD Territorial Review: Peru)

○ 최근에 괄목한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페루의 국토공간에 대한 리뷰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정책적 도전과제를 도출

- 페루의 현재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11,000 달러 규모이며, 매년 4% 이상의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국토공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제적 성장이 리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국가 전체 생산의 50% 이상을 리마가 감당), 비도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에 고통받고 있음
- 페루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음의 정책적 방향이 제안됨
 1. 분권화: 지역의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지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효과적인 연계협력 방안이 창출되어야 함(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의 부문별 혁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2.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의 활용: 주거환경 개선 및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러한 공간계획들은 종합적인 접근을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함
 3. 도시 비도시지역의 정의 통일: 7개로 혼재하는 도시와 비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를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수행의 전국적으로 통일 할 필요가 있음

라. 국토부-OECD 공동연구과제 발표회 (2016.4.22.)

- RDPC에 참여(4.21)하여 국토부-OECD 2015년 공동 협력과제인 ‘한국의 도로인프라, 포용적 발전, 교통안전’ 연구결과에 대해 코멘트
 - 포용적 발전을 위한 국가 도로망 확충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변수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
 - 도로교통 안전부분 연구에 대해 세밀한 데이터 분석을 높게 평가한 반면,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이 필요함을 지적
- 상기 협력과제의 출간회(4.22)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간선도로투자(간선도로과장) 및 교통안전 정책(국제협력통상담당관)에 대해 발표
 - (간선도로 투자) 한국 도로의 현황 및 안전 투자, 도로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 등에 대해 소개
 - (교통안전) 한국정부가 교통사고사망률 감소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

IV. 회의사진

